

“대자연의 시·공간 직관을 통한 자기외화(自己外化) 그림전” 열어 패키지디자인에 대한 애착으로 산학발전에 일익 담당



최 충 식

대구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지난 달 14일부터 20일까지 서울 디아트 갤러리에서는 대구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시각디자인학과 최충식 교수의 개인 회화전이 열렸다. 1989년 대구대학교 미술대학 포장디자인연구회를 창립한 이후 현재까지 국가 산업 및 교육계의 포장디자인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온 그는 이번 개인 회화전을 통해 병마와 싸워 온 ‘자기치유(自己治癒)’의 흔적을 표현하고자 노력했다. 건강한 웃음을 되찾은 최충식 교수를 만나 이번 회화전에 대한 견해와 포장디자인 업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 편집자 주 -

최충식 교수는 (주)태평양 화장품 및 식품제약 포장디자인 제작과장과 (주)LG 디자인실 부장을 거쳐, 1988년부터 대구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한 업계 실무 1세대 교수로 유명하다.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에서 포장디자인을 전공한 그는 그동안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대구광역시 산업디자인전, 경상북도 미술대전 등의 초대작가와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한국팩스타 콘테스트, 베스트 패키지 디자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 등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그 위치를 공고히 해왔다.

특히 최충식 교수는 대구대학교 3, 4학년 패키지 디자

인 전공자를 대상으로 1989년 대구시민회관 대 전시설에서 회원전을 개최하면서 '대구대학교 미술대학 포장디자인연구회'를 정식 창립, 현재 까지 우수포장디자이너를 양성, 업계로 진출시켰으며, 지난 2002년에는 한용교패키지디자인 상 단체부문으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동안 최 교수는 "실무 위주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그동안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해 학생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켜왔다.

매년 90% 이상의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는 대구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는 이런 노력 결과, 지역발전엔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참여정부의 대형 국책 사업인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 사업)' 대상자로 선정, 연간 25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패키지디자이너의 양성에 주력해 온 최충식 교수.

그는 2여년전 위암선고를 받고, 수술을 하며 치유하는 정신적 혼란 과정속에서 느낀 세계를 금번 회화전을 통해 표출했다.

지난 달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서울 디아트 갤러리 전시장에는 "대자연의 시·공간적 직관을 통한 자기외화(自己外化)"라는 주제로 최충식 교수의 작품 22점이 전시, 많은 이들의 호평을 받았다.


장미진 미술평론가는 최충식 교수의 개인 회화전 작품들에 대해 "병마와 싸우면서 삶의 질곡을 표현한 방식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며 "특

히 고구려 고분 벽화의 이미지나 조선시대 분청의 문양, 민화의 이미지들을 심상공간 속으로 끌어내어 현재화 했다"고 평가했다.

전시한 22점의 작품들에는 전통적인 오방색의 상징성을 고려한 채색 뿐만 아니라 나이프 작업, 뿌리기, 테이핑 작업 등 다양한 창작 프로세스를 통해 표현의도를 극대화 하고 있는 등 자연과 인간, 과거와 현재, 구상과 추상, 디자인과 표현 사이의 간극을 넘어 진정한 예술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최충식 교수의 염원이 그대로 표현됐다.

금번 최충식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그는 "의지를 갖고 원하는 바 최선을 다하면 목적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게 된다"고 전하면서 "학계에 머무는 동안 체계적이고 차별화 된 교육을 통해 패키지디자이너의 양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최충식 교수는 「선물포장」, 「실전 포장디자인」, 「패키지 지기구조디자인」, 「옛포장의 기억속으로」, 「패키지디자인소스」 등 다양한 패키지 관련 저서와 학술 논문을 발표했다.

지역사회에 포장디자인 분야를 활성화 시키고, 국내외 산업디자인 업계에 경쟁력 있는 포장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는 우수 포장디자이너를 양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산학(産學) 발전을 이끌어 온 최충식 교수. 금번 회화전을 계기로, 그가 누구보다도 건강한 삶 속에서 전진하기를 기대해 본다. 

박초혜 기자